

# 조증환자와 정신분열증 환자의 Rorschach 반응 비교(1)

유인옥 · 박순환

주영희

부산 대남병원    부산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75명의 조증환자 집단과 77명의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두 집단의 Rorschach 반응의 특징을 알아보고, 두 집단을 잘 변별해 주는 반응들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Rorschach 반응들은 Exner 종합체계(1986)에 따라 실시되고, 채점되고, 분석되었다. 조증 집단은 7명의 경조증, 52명의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되지 않은 조증기에 있는 양극성 장애, 16명의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정신분열증 집단은 26명의 편집형 정신분열증과 51명의 다른 하위유형에 속하는 정신분열증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Exner가 제안한 70개 변인중에서, 조증 집단은 정신분열증 집단에 비해 14개 변인(R, P, W, FQo, M, Ma, FM, a, Wgt Sum C, Sum C', Zf, EA, es, X+)에서 평균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4개 변인(X-%, SCZI, SUM6 SP SC, WSUM6 SP SC)에서는 평균치가 유의하게 낮았다. 9개 변인(R, P, Ma, a, Sum C', es, X-%, SUM6 SP SC, WSUM6 SP SC)이 유의한 판별 변인이었다. 그 후 같은 70개 변인에 대해,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집단(MP집단)의 반응과 편집형 정신분열증 집단(SP집단)의 반응을 비교하였다. MP집단이 SP집단에 비해 10개 변인(R, W, DQv, FQo, Ma, a, CF, Wgt Sum C, Primary content, A11 H)에서 평균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2개 변인(S-CON, DEPI)에서 평균치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런 결과들을 볼 때, 조증 집단은 정신분열증 집단에 비해 더욱 능동적이고 활발한 사고 작용과 더욱 풍부한 정동 반응을 보이고, 더욱 적은 인지적 결합 반응들을 보였다. 그리고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집단은 편집형 정신분열증 집단에 비해 더욱 활발한 사고 작용과 유쾌한 정동반응 및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나, 두 집단은 인지적 결합 반응들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조울증의 25% 이상에서 정신분열증과 감별이 어려운 Schneider 일급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 형식적 사고장애(formal thought disorder)의 대부분의 유형이 정신분열증과 기분 장애에서 흔히

관찰되고 있어(Akiskal, 1983), 실제 임상장면에서 조증을 정확히 진단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조증에 정신병적인 특징들(망상, 환각, 기태적 행동 등)이 수반될 때는 빈번히 편집

형 정신분열증과 감별이 어렵다. 감별 진단을 위해 정신과에서는 기본장애의 가계력이 있는지, 병전 적응상태가 좋았는지, 완전히 회복되었던 기본장애의 과거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며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임상심리 평가를 하게 된다.

임상 장면에서 정신병적 특징들을 가장 잘 진단해주는 대표적 검사로 Rorschach검사를 들 수 있다. Ogdon(1981)은 선행 연구들을 개관하여 조증의 Rorschach 특징을 제시하였다. Ogdon(1981)이 제시한 Rorschach검사의 지표들을 그 중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결정인과 영역 반응에서 1) F반응의 형태질이 낮다, 2) F%가 20%이하이다, 3) CF-반응이 있거나 C/F반응이 있다, 4) C반응의 합계가 3점 이상이다, 5) C반응의 합계가 M반응에 근접하거나 C반응과 M반응이 모두 많다, 6) W반응이 많다, 7) di반응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Rorschach 지표로서는 1) 추상반응이 많다, 2) 총 반응수가 특히 많다, 3) 반응 시간이 짧다, 4) 반응 방식에서 유쾌하거나 흥분된 색조가 지배적이다, 5) 오염 반응과 이상한 사고 조합이 있다, 6) 혼란된 반응 연속이 있다는 점이다. Ogdon이 개관한 연구들에 Exner(1974)의 연구가 포함되기는 하나, 대부분의 연구가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행해진 연구로서 검사 실시와 채점 방식에 따라 그 결과들이 영향을 받게되며, 다른 진단군과 비교된 조증의 독특한 Rorschach 검사상의 특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제 임상 장면에서 이런 지표들의 사용이 제한을 받고 있다.

Exner가 Rorschach 종합체계(1974)를 제안한 이후로 Rorschach 검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Rorschach의 기준 연구들(Exner, 1986)을 보면, 비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과 청소년 집단(5세에서 16세)의 기준, 성인 집단(18세에서 64세)의 기준, 성인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분열증 집단의 기준,

입원한 우울증 집단의 기준, 외래 환자 중 성격장애 집단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조증 집단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Exner의 종합체계(1986)에 따라 실시되고 채점된 조증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로 Singer와 Brabender(199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되지 않은 양극성 장애의 조증기(18명), 양극성 장애의 우울기(15명), 단극성 우울증(29명) 환자들의 반응을 Exner(1991)의 7가지 해석 군집(통제, 정동, 관념, 정보처리, 인지적 매개, 자기-지각, 대인 지각)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관념(ideation) 군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조증 집단은 특별 점수의 합계(SUM6), 가중치를 준 특별 점수의 합계(WSUM6), 능동 운동 대 수동 운동의 비율(a:p)이 정상 범위( $1/3p < a < 3p$ )에 속하는 빈도, 정신분열증 지표(SCZI가 5점 이상인 비율을 보면, 양극성 장애의 조증기의 33%, 우울기의 0%, 단극성 우울증의 3%가 이에 해당)가 두 우울증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Singer와 Brabender가 임상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되지 않은 양극성 장애의 조증 환자를 피험자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증 집단에서 특별점수의 합계(SUM6), 가중치를 준 특별 점수의 합계(WSUM6)가 두 우울증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고, 특히 정신분열증 지표(SCZI)가 5점 이상인 경우가 33%인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임상장면에서 Exner의 종합체계(1974, 1986)를 사용하여 행해진 연구들을 보면, 이해리(1985)가 정신분열증 집단, 정상인 집단, 그리고 불안 우울 신체화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정신분열증을 가장 잘 판별해 주는 Rorschach 변인들을 찾고자 하였고, 신경진과 원호택(1991)이 정상 성인 278명을 대상으로 한국 정상 성인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미국 정상 성인의 기준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 장면에서 감별이 어려운 조증 환자와 정신분열증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Rorschach 반응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더욱 구분이 어려운 편집형 정신분열증과 정신병적 양상이 수반되는 조증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Rorschach 반응 특징들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 방 법

### 피험자

조증 환자집단(75명)과 정신분열증 환자집단(77명)의 두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각 임상 집단에 속하는 피험자들은 부산과 양산에 소재한 네 곳의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로서, 입원시 Rorschach 검사가 Exner 종합체계(1986)에 따라 실시되었고, 정신과 전문의가 퇴원시 DSM-III-R에 의거하여 내린 최종 진단에 따라 선택되었다. 검사자들(총 6명)은 임상심리전문가(4명)를 포함하여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정신과에서 1년 이상의 임상심리 기초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었다.

조증 환자집단(TM집단)은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되지 않은 양극성 장애의 조증기에 있는 환자(MN집단) 52명, 경조증 환자(HM집단) 7명, 분열 조증 장애 환자를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환자(MP집단) 16명으로 이루어졌다. 정신분열증 환자집단(TS집단)은 병발 5년 이내의

심하게 만성화되지 않은 환자로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SP집단) 26명, 그외의 정신분열증 환자(SO집단) 51명으로 이루어졌다. 각 집단 피험자들의 연령과 교육 수준의 평균, 성비(sex ratio)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증 집단(TM집단)과 정신분열증 집단(TS집단)의 연령과 교육 수준의 평균, 성비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집단(MP집단)과 편집형 정신분열증 집단(SP집단)간에는 교육 수준의 평균과 성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 > .05$ ), 연령 평균에 있어서 편집형 정신분열증 집단(SP집단)의 연령(29.27세)이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집단(MP집단)의 연령(25.13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 < .05$ ).

### 절차 및 자료 처리

Exner(1986)는 전체 반응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검사의 타당도가 의심되며 이 자료를 버릴 것을 제안하였다. 전체 수집된 자료(정신분열증, 조증 각 90명) 중 15.6%(조증: 15례, 정신분열증: 13례)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선정된 152사례(조증: 75례, 정신분열증: 77례)를 본 연구자 2인이 무선적으로 나누어 Exner 종합 체계(1986)에 따라 채점하였고, 채점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서로 토의하여 채점 유무를

표 1. 피검자의 특성

구 분	조증 집단				정신분열증 집단			
	HM	MN	MP	TM	SP	SO	TS	
연령 M	23.29	30.29	25.13	28.53	29.27	25.12	26.52	
(SD)	(6.29)	(10.57)	(4.13)	(9.53)	(6.87)	(5.64)	(6.35)	
교육 M	12.86	12.14	12.19	12.21	11.92	11.88	11.90	
수준 (SD)	(3.44)	(2.69)	(1.28)	(2.51)	(3.35)	(1.74)	(2.38)	
성비 남	42.86%	69.23%	62.50%	65.33%	57.70%	66.67%	63.64%	
여	57.14%	30.77%	37.50%	34.67%	42.30%	33.33%	36.36%	

결정하였다. 채점이 신뢰로운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표집에서 36명(23.7%)을 뽑아서 연구자가 아닌 다른 임상심리전문가(1인)의 채점과의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채점자간 일치도를 채점 유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았다. 영역=99.1%, 발달질=98.0%, 결정인=96.1%, 형태질=98.2%, 내용=95.7%, 조직화=95.8%, 특별 점수=86.3%로 특별점수에 대한 일치도가 약간 낮은 편이나 다른 항목들은 높은 일치율을 보여 주었다.

자료 처리는 Exner가 제시한 70개 Rorschach 변인에 대해, 전체 조증 환자 집단(75명)과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77명)의 평균 간의 차이 검증,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환자 집단(16명)과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26명)의 평균 간의 차이 검증을 시행하였다. 전체 조증 집단(75명)과 전체 정신분열증 집단(77명)을 가장 잘 구분해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평균간에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변인들을 WILKS 방식으로 판별 분석하였다.

## 결 과

### 조증 환자 집단과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의 비교 : 평균 간의 차이 검증과 판별분석

70개 Rorschach 변인에 대해, 조증 환자 집단(N=75)과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N=77)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t검정한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조증 집단은 정신분열증 집단에 비해, 평범 반응(P), 평범 형태질(FQo), 능동적 활동(a), 확대 우수 형태질(X+%) (이상은 유의도 수준이  $p < .001$ ), 총 반응수(R), 조직화 빈도(Zf), 경험 실제(EA) (이상은 유의도 수준이  $p < .01$ ), 전체 영역 반응(W), 인간 운동(M), 능동적 인간 운동(Ma), 동물 운동(FM), 가중치를 준 유채색 반응의 합(Wgt Sum C), 무채색 반응의 합(FC'+C'F+C'), 경험 잠재(es) (이상은 유의도 수준이  $p < .05$ )에서 평균치가 유의하게 높았고, 확대 열

등 형태질(X-%), 특별 점수의 합계(SUM6 SP SC), 가중치를 준 특별 점수의 합계(WSUM6 SP SC) (이상은 유의도 수준이  $p < .001$ ), 정신분열증 지표(SCZI) (유의도 수준이  $p < .01$ )에서 평균치가 유의하게 낮았다.

표 2. 70개 Rorschach 변인에 대한 조증 환자(N=75)와 정신분열증 환자(N=77)의 평균(표준편차)과 t 검증 결과

변 인	조증 집단	정신분열증 집 단	t 값
R	14.97( 5.29)	12.97( 3.76)	2.69**
P	4.41( 1.79)	3.31( 1.59)	4.02***
W	7.41( 3.16)	6.35( 2.44)	2.32*
D	6.53( 4.90)	5.66( 3.71)	1.24
Dd	1.01( 1.38)	.95( 1.46)	.28
S	1.16( 1.47)	.97( 1.25)	.84
DQ+	3.71( 2.29)	3.04( 2.21)	1.83
DQv/+	.09( .29)	.05( .22)	.98
DQo	9.95( 4.84)	8.71( 3.76)	1.76
DQv	1.19( 1.47)	1.17( 1.29)	.08
FQ+	.01( .12)	.00( .00)	-
FQo	8.29( 3.55)	6.21( 2.50)	4.18***
FQu	2.73( 2.13)	2.23( 1.76)	1.58
FQ-	3.40( 2.69)	4.21( 2.62)	-1.88
M	2.32( 1.88)	1.71( 1.65)	2.11*
Ma	1.47( 1.33)	1.01( 1.23)	2.19*
Mp	.85( 1.17)	.70( .95)	.88
M-	.43( .72)	.48( .75)	-.45
FM	2.55( 2.24)	1.84( 1.87)	2.10*
m	.83( 1.07)	.53( .88)	.06
a(active)	3.84( 2.65)	2.38( 2.31)	3.64***
p(passive)	1.84( 1.73)	1.71( 1.82)	.44
FC	.68( 1.13)	.39( .75)	1.88
CF	1.04( 1.17)	.70( 1.15)	1.80
C+Cn	.39( .73)	.33( .70)	.53
Wgt SumC	1.93( 1.86)	1.34( 1.54)	2.13*
FC'+C'F+C'	.81( 1.06)	.51( .79)	2.02*
FT+TF+T	.19( .49)	.17( .44)	.24
FV+VF+V	.12( .37)	.07( .25)	1.08

변 인	조중 집단	정신분열증 집 단	t 값
FY+YF+Y	.27( .64)	.46( .87)	-1.52
SUM Shad'g	1.39( 1.54)	1.20( 1.42)	.80
Fr+rF	.01( .12)	.01( .11)	.02
(2)	4.44( 2.58)	3.70( 2.05)	1.95
FD	.11( .35)	.05( .22)	1.14
F	7.19( 4.61)	7.36( 3.92)	-.26
Zf	8.35( 3.27)	6.97( 2.92)	2.73**
Zd	-2.75( 3.06)	-1.98( 3.35)	-1.47
EA	4.25( 3.16)	3.06( 2.46)	2.60**
es	4.76( 3.14)	3.57( 3.16)	2.33*
D점수	-.16( 1.05)	-.10( 1.06)	-.33
Adj D	-.05( 1.10)	.00( .84)	-.34
Afr	.44( .23)	.42( .13)	.86
3r+(2)/r	.30( .15)	.29( .15)	.36
Lambda	1.68( 2.98)	2.24( 2.76)	-1.19
Blends	1.48( 1.53)	1.14( 1.39)	1.42
Col-Sh B1	.05( .22)	.05( .22)	.04
X+%	56.49(15.30)	48.34(15.58)	3.26***
F+%	52.97(34.06)	47.44(29.13)	1.08
X-%	22.05(14.94)	31.62(16.24)	-3.78***
A%	50.29(19.14)	52.25(18.60)	-.64
Prim Cont	6.63( 2.63)	6.01( 2.41)	1.50
Pure H	1.83( 1.64)	1.57( 1.53)	.99
All H cont	3.36( 2.28)	2.66( 2.27)	1.89
S-Constell	4.44( 1.45)	4.60( 1.42)	-.68
SCZI	2.01( 1.20)	2.57( 1.28)	-2.77**
DEPI	.77( .83)	.64( .67)	1.12
DV	.15( .39)	.31( .63)	-1.94
DR	.11( .48)	.26( .64)	-1.67
INCOM	.07( .25)	.14( .39)	-1.44
FACOM	.28( .53)	.42( .82)	-1.21
ALOG	.15( .49)	.17( .44)	-.29
CONTAM	.00( .00)	.27( .68)	-
SUM6 SP SC	.75( 1.07)	1.57( 1.85)	-3.38***
WSUM6 SP SC	2.45( 3.88)	5.79( 8.03)	-3.28***
AG	.51( .99)	.35( .66)	1.14
CONFAB	.00( .00)	.10( .38)	-
CP	-	-	-
MOR	.12( .40)	.26( .64)	-1.62

변 인	조중 집단	정신분열증 집 단	t 값
PER	.16( .75)	.20( .69)	-.32
PSV	.24( .57)	.22( .48)	-.19

\*  $p < .05$  \*\*  $p < .01$  \*\*\*  $p < .001$

이 결과를 보면, 조중 집단은 정신분열증 집단에 비해 관습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많고(P), 정확하고 능동적인 지각상을 형성하고 있고(FQo, X+%, X-%, a), 사고 혼란(WSUM6, SUM6, SCZI)이 적은 특징들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조중 집단은 정신분열증 집단에 비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고(R), 자극을 전체적으로 조직화해서 보려는 경향이 많으며(W, Zf), 사고 활동이 활발하고(M, Ma),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더욱 드러내고(FM), 유쾌하거나 불쾌한 감정들을 더 잘 표현하는(Wgt Sum C, Sum C') 등 내적 자원이 풍부하면서 현실세계에서 심리적 자원을 더 잘 활용하고 있다(es, EA).

두 집단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18개 변인들(R, P, W, FQo, M, Ma, FM, a, Wgt Sum C, Sum C', Zf, EA, es, X+%, X-%, SCZI, SUM6 SP SC, WSUM6 SP SC)을 WILKS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판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판별 함수는 고유치(eigen value)가 .359이고  $x^2=44.67$ (df=9)이며, 정준상관계수가 .51로 두 집단 구분에 유의하였다( $p < .001$ ). 18개 변인 중 9개 변인(R, P, Ma, a, Sum C', es, X-%, SUM6 SP SC, WSUM6 SP SC)이 두 집단의 판별에 유의하였는데 이들 변인이 판별 함수에 기여한 정도(표준화 판별 계수)를 보면, 특별 점수의 합(SUM6 SP SC=-.952), 능동 운동(a=.920), 경험 잠재(es=-.545), 가중치를 준 특별 점수의 합(WSUM6 SP SC=.510), 무채색 반응의 합(SUM C'=.452), 확대 열 등 형태질(X-%=-.429), 능동적 인간 운동(Ma=.

370), 총 반응수(R=.355), 평범 반응(P=.257)의 순으로, 두 집단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특별 점수의 합(SUM6 SP SC), 능동 운동(a) 반응이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컸다. 비표준화 계수를 사용한 판별 함수는 다음과 같았다.  $X = -.926 + .078R + .152P - .289Ma + .371a + .484Sum C' - .173es - .027X - \% - .630SUM6 SP SC + .080WSUM6 SP SC$ 이었다. 이 판별함수를 사용한 조증 집단의 중심치는 .603이었고, 정신분열증 집단의 중심치는 -.588이었다. 도출된 판별함수를 이용한 실제 판별율은 표 4와 같았다. 표 4를 보면, 조증을 정확하게 판별해 주는 비율이 69.3%, 정신분열증을 정확히 판별해 주는 비율은 76.6%였고, 전체 정확 판별율은 73.03%로, 두 집단을 우연히 판별할 수 있는 비율(50.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판별율을 보여주었다.

표 3. 정준 판별 함수

고유치	정준 상관계수	$x^2$	df	유의도
.359	.514	44.67	9	$p < .001$

  

추출된 척도	판별 함수 계수	
	표준화된 계수	비표준화된 계수
R	.356	.078
P	.257	.152
Ma	-.370	-.289
a	.920	.371
Sum C'	.452	.484
es	-.545	-.173
X-%	-.429	-.027
SUM6	-.952	-.630
WSUM6 (상수)	.510	.080
집단 중심치	조증 집단	.603
	정신분열증 집단	-.588

표 4. 판별 결과

사례수(%)

실제 집단	사례수	예언된 집단	
		조증 집단	정신분열증 집단
조증 집단	75	52(69.3)	23(30.7)
정신분열증 집단	77	18(23.4)	59(76.6)

전체 정확 판별율 : 73.03%

####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환자 집단과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의 비교

70개 Rorschach 변인에 대해,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환자 집단(N=16)과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N=26)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t검정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12개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환자 집단이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에 비해 전체 반응수(R), 전체 영역 반응(W), 미정형 발달질(DQv), 평범 형태질(FQo), 능동적 인간운동(Ma), 능동 운동(a), 유채색-형태 반응(CF), 가중치를 준 유채색 반응의 합(Wgt Sum C), 일차적 내용 반응의 수(Primary content), 총 인간반응수(All H)의 평균치가 유의하게 높았고(이상은 유의도 수준이  $p < .05$ ), 자살 지표(S-CON)와 우울지표(DEPI)에서 평균치가 유의하게 낮았다(이상은 유의도 수준이  $p < .05$ ).

이 결과를 보면,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MP) 집단이 편집형 정신분열증(SP) 집단에 비해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을 표현하는 경향이 많고(R), 자극을 전체적으로 지각하며(W), 모호한 형태를 지각하는 경향이 많으면서도(DQv) 평범하게 지각하는 경향(FQo)이 유의하게 높아 보인다. 또한 MP집단은 SP집단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Ma), 움직임이 많은 지각상(a)을 형성하고, 감정 반응을 쉽게 드러내고(CF, Wgt Sum C), 흥미의 폭이 넓고(Primary content), 인간에 대한 관심(All H)이 유의하게 높으나 자살 가능성(S-CON)과 우울감(DEPI)은 유의하게 낮아 보인다.

표 5. 70개 Rorschach 변인에 대한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환자(N=16)와 정신분열증 편집형 환자(N=26)의 평균(표준편차)과 t 검증 결과

변 인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집단	편집형 정신분열증 집단	t 값
R	15.38( 6.94)	11.39( 1.70)	2.26*
P	4.25( 2.35)	3.27( 1.54)	1.64
W	7.44( 2.99)	5.77( 2.16)	2.10*
D	7.19( 5.74)	5.04( 2.13)	1.44
Dd	.75( .93)	.54( .76)	.80
S	.69( .70)	.58( .76)	.47
DQ+	3.50( 2.07)	2.92( 2.10)	.87
DQv/+	.00( .00)	.00( .00)	-
DQo	10.00( 5.49)	7.77( 2.82)	1.51
DQv	1.88( 1.89)	.73( .92)	2.26
FQ+	.00( .00)	.00( .00)	-
FQo	9.06( 5.77)	5.85( 1.49)	2.19*
FQu	2.75( 2.46)	2.08( 1.60)	1.08
FQ-	2.94( 1.65)	3.18( 2.10)	-.41
M	2.69( 2.02)	1.58( 1.24)	1.98
Ma	1.69( 1.01)	.92( 1.13)	2.21*
Mp	1.00( 1.27)	.65( .75)	1.99
M-	.50( .63)	.42( .59)	.40
FM	2.31( 1.96)	2.08( 1.65)	.09
m	.94( 1.29)	.39( .75)	1.59
a(active)	3.88( 2.63)	2.31( 2.09)	2.14*
p(passive)	1.88( 1.96)	1.73( 1.54)	.27
FC	.44( .81)	.31( .62)	.59
CF	1.25( 1.29)	.46( .76)	2.22*
C+Cn	.69( .95)	.19( .57)	1.89
Wgt SumC	2.38( 2.45)	.90( 1.11)	2.27*
FC'+C'F+C'	.44( .73)	.54( .65)	-.47
FT+TF+T	.06( .25)	.08( .39)	-.13
FV+VF+V	.13( .50)	.04( .20)	.66
FY+YF+Y	.44( .63)	.31( .62)	.66
SUM Shad'g	1.06( 1.12)	.96( 1.18)	.27
Fr+rF	.06( .25)	.00( .00)	-
(2)	4.31( 2.62)	3.96( 1.87)	.51
FD	.19( .54)	.12( .33)	.48

변 인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집단	편집형 정신분열증 집단	t 값
F	7.63( 4.21)	6.27( 2.99)	1.22
Zf	7.63( 3.69)	6.50( 2.35)	1.09
Zd	-2.59( 3.93)	-1.87( 3.48)	-.63
EA	5.06( 4.31)	2.48( 1.86)	2.27
es	4.13( 3.22)	3.42( 2.34)	.82
D점수	.31( 1.01)	-.12( .59)	1.54
Adj D	.44( 1.15)	-.12( .59)	1.78
Afr	.50( .25)	.41( .13)	1.34
3r+(2)/r	.30( .17)	.36( .18)	-1.12
Lambda	1.12( 1.19)	2.25( 2.70)	-1.86
Blends	1.56( 2.22)	.89( 1.07)	1.14
Col-Sh B1	.06( .25)	.04( .20)	.35
X+%	57.44(14.90)	51.58(12.35)	1.38
F+%	45.94(42.48)	47.19(38.03)	-.10
X-%	21.13(12.18)	27.35(15.87)	-1.34
A%	46.38(22.50)	56.08(18.30)	-1.34
Prim Cont	7.06( 3.28)	5.23( 2.14)	2.20*
Pure H	2.06( 1.69)	1.19( .80)	1.93
All H cont	3.75( 2.38)	2.27( 1.34)	2.28*
S-Constell	4.13( 1.31)	5.00( 1.20)	-2.22*
SCZI	2.19( .98)	2.27( 1.22)	-.23
DEPI	.69( .70)	.42( .64)	1.25
DV	.06( .25)	.46( .81)	-1.90*
DR	.00( .00)	.08( .27)	-
INCOM	.00( .00)	.12( .33)	-
FACOM	.50( .82)	.27( .60)	1.05
ALOG	.13( .34)	.12( .33)	.09
CONTAM	.00( .00)	.19( .57)	-
SUM6 SP SC	.69( .95)	1.23( 1.58)	-1.39
WSUM6 SP SC	2.69( 4.00)	3.92( 6.26)	-.70
AG	.19( .40)	.42( .64)	-1.31
CONFAB	.00( .00)	.12( .43)	-
CP	.00( .00)	.00( .00)	-
MOR	.00( .00)	.31( .79)	-
PER	.19( .54)	.04( .20)	1.05
PSV	.25( .58)	.31( .62)	-.30

\*  $p < .05$  \*\*  $p < .01$  \*\*\*  $p < .001$

## 논 의

Exner 종합체계에 따라 조증 환자 집단(75명)과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77명)의 Rorschach 반응들을 비교해 본 결과, 18개 변인(R, P, W, FQo, M, Ma, FM, a, Wgt Sum C, Sum C', Zf, EA, es, X+%, X-%, SCZI, SUM6 SP SC, WSUM6 SP SC)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중 9개 변인(R, P, Ma, a, Sum C', es, X-%, SUM6 SP SC, WSUM6 SP SC)이 관별함수 분석에서 유의하였고, 특히 두 집단을 관별하는데 있어서 특별 점수의 합(SUM6 SP SC), 능동 운동(a) 반응이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변인에 비해 매우 컸다.

앞선 결과를 Exner(1986)의 9가지 구조 요인(타당도; 스트레스 참울성과 통제; 대처 전략; 인지-인지적 선도성과 복잡성, 관습적 사고와 지각적 정확성, 인지적 경직성의 세 유목이 포함됨; 관념; 정동; 자기상; 대인간 태도; 특별지표)에 따라 보면, 전체 조증 집단과 전체 정신분열증 집단은 타당도(R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Lambda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대처 양식(EA, es), 인지적 선도성과 복잡성(Zf, W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DQo, Zd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관습적 사고와 지각적 정확성(P, X-%, X-%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관념의 특징(M, Ma, SUM6 SP SC, WSUM6 SP SC), 정동의 특징(Wgt Sum C, Sum C'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Afr, S, CP, Blend response, Sum Shad'g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특별 지표 중 정신분열증 지표(SCZI)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 참울성과 통제(D, AdI D), 인지적 경직성(PSV, CONFAB), 자기상(3r+(2)/R, MOR, PER), 대인관계 지각(Pure H, All H), 특별 지표 중 우울증 지표(DEPI)와 자

살지표(S-CON)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조증 집단은 정신분열증 집단에 비해 더욱 능동적이고 활발한 사고 작용과 더욱 풍부한 정동 반응을 보이고 있고, 더욱 적은 인지적 결합 반응들을 보인다. Ogdon(1981), Singer와 Brabender(1993)의 결과들과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비교해 보면, Ogdon(1981)이 조증의 Rorschach 특징으로 들고 있는 지표 중에서, 유채색 반응과 인간 운동 반응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점, 총 반응수와 전체 영역 반응이 많은 점, 사고의 혼란이 있는 점이 역시 본 연구에서도 관찰되었으나 조증 집단은 정신분열증 집단에 비해서 우수한 형태질이 많고, 열등한 형태질이 적으며, 사고 혼란과 관련되는 특별 지표점수들이 유의하게 낮았다

더욱 감별이 어려운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환자집단(16명)과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집단(26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변인들은 12개 변인(R, W, DQv, FQo, Ma, a, CF, Wgt Sum C, Primary content, All H, S-CON, DEPI)이었다. 이 결과를 역시 Exner(1986)의 9가지 구조 요인에 따라 보면,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환자 집단과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집단에 있어서는 타당도(R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Lambda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인지적 선도성과 인지적 복잡성(W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Zf, Zd, DQo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관념의 특징(Ma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M, SUM6 SP SC, WSUM6 SP SC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정동(CF, Wgt Sum C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Sum C', Sum Shad'g, Afr, S, CP, Blend response에서는 유의한 차이 없었음), 대인관계 지각(All H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ure H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특별 지표중 자살 지표(S-CON)와 우울지표(DEPI)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 참울성과 통제, 대처 양식, 인지적 경직



성, 관습적 사고와 지각적 정확성, 자기상, 특별 지표중 정신분열증 지표(SCZI)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보면,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집단(MP집단)은 편집형 정신분열증 집단(SP집단)에 비해 더욱 활발한 사고 작용과 유패한 정동 반응,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두 집단이 인지적 결함 반응들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나, 두 집단의 사례수가 적은 점이 이런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으로 보여진다.

Exner(1986)의 9가지 구조 요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 보면, 능동적 운동반응(a)은 전체 조증 집단(TM집단)과 전체 정신분열증 집단(TS집단),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집단(MP집단)과 편집형 정신분열증 집단(SP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다. 이 반응은 또한 TM집단과 TS집단을 구분해 주는 중요한 관별 변인이다. Rorschach 검사에서 채점되는 운동 반응에는 인간운동(M), 동물운동(FM), 무생물 운동(m) 반응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인간운동(M)은 의도적으로 유발되고 방향성이 있는 관념(directed ideation)과 관련되나, 동물운동(FM) 반응과 무생물 운동(m)반응은 이와는 달리 요구(demand) 자극에 의해 유발되나 방향성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는 정신 활동으로, 동물운동(FM) 반응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관련되고, 무생물 운동(m) 반응은 상황적 스트레스에 따르는 무력감, 통제 상실감과 관련된다(Exner, 1986).

조증 집단과 정신분열증 집단에서 보이는 능동적 운동(a) 반응의 유의한 차이가 세가지 운동 반응 중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보기 위해, 조증 집단과 정신분열증 집단간에 능동적 동물 운동(FMa), 능동적 무생물 운동(ma) 반응의 평균간의 차이 검증을 추가적으로 행하였다. 표 2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70개 변인 중에 포함되었던 능동적 인간운동(Ma)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5$ )를 보이는 이외에, 능동적 동물 운동

(FMa) ( $t=2.80$ ,  $df=150$ ,  $p < .01$ ), 능동적 무생물 운동(ma) ( $t=2.08$ ,  $df=150$ ,  $p < .05$ ) 반응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를 볼 때, 조증 집단이 정신분열증 집단에 비해 더욱 움직임이 활발하게 자극을 지각하고 있으며, 이런 자극은 활발한 사고, 요구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증 집단과 정신분열증 집단 간에 능동적 운동 반응과 수동적 운동반응의 비율이 정상 범위( $1/3p < a < 3p$ )에 속하는 빈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8.29$ ,  $df=2$ ,  $p < .05$ ). 두 집단 모두 능동적 운동반응에 대한 수동적 운동반응의 비율이 정상 범위( $1/3p < a < 3p$ )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으나(조증: 62.3%, 정신분열증: 61.5%), 조증집단은 정신분열증 집단에 비해 능동적 운동반응이 수동적 운동반응에 비해 3배 이상인 경우( $a > 3p$ )가 많았고(조증: 30.2%, 정신분열증: 13.5%), 정신분열증 집단은 조증 집단에 비해 수동적 운동반응이 능동적 운동반응에 비해 3배 이상인 경우( $p > 3a$ )가 많았다(조증: 7.5%, 정신분열증: 25.0%). 따라서 능동적 운동반응이 수동적 운동반응에 비해 3배 이상 높을 때는 조증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사례수의 부족으로 교차 타당화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점, 특히 편집형 정신분열증 집단(26명)과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조증 집단(16명)의 사례수가 특히 작아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또한 Exner(1991)가 최근에 제안한 7가지 해석 군집 요인에 따라 자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지 못한 점이 미흡하다. 그러나 조증의 Rorschach 검사상의 특징을 실제 임상 장면에서 감별이 어려운 정신분열증의 특징과 비교하여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실제 임상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위에 언급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 참고문헌

- 신경진, 원호택 (1991). Exner 종합체계에 따른 한국 정상 성인의 반응 특성 I.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0, 206-215.
- 이해리 (1985). Rorschach 반응의 판별함수분석에 의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감별 진단.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kiskal, H.S. (1983). The bipolar spectrum: New concepts in classification and diagnosis. In L. Grinspoon (ED.), *Psychiatric update: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nnual review*, Vol. 2 (pp. 271-29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s (3rd) - revised*. Washing-

- ton, D.C.: APA.
- Exner, J.E. (1974).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 1 (1st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Exner, J.E. (1986).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 1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Exner, J.E. (1991).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 2. Interpretation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Ogdon, D.P. (1981). *Handbook of psychological signs, symptoms, and syndromes*. Californi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Singer, K.E., & Brabender, V. (1993). The use of Rorschach to differentiate unipolar and bipolar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0, 333-345.

## **The Comparative Study of Manic Group and Schizophrenic Group on Rorschach Responses**

In-Ok Yoo. Soon-Whoan Park Young-Hee Joo

Pusan Daenam Hospital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purposed to identify and differentiate between manic group(N=75) and schizophrenic group(N=77) on Rorschach responses. Rorschach was administered, scored, and analyzed by Exner's comprehensive system(1986). Manic group consisted of hypomania(N=7), bipolar disorder, manic without psychotic features(N=52), and bipolar disorder, manic with psychotic features including schizoaffective, manic type(N=16). Schizophrenic group consisted of schizophrenia, paranoid type(N=26) and schizophrenia, other type(N=51). In 70 variables proposed by Exner, manic group was scored higher than schizophrenic group on 14 variables(R, P, W, FQo, M, Ma, FM, a, Wgt Sum C, Sum C', Zf, EA, es, X+%), but was scored lower on 4 variables(X-%, SCZI, SUM6 SP SC, WSUM6 SP SC). 9 variables(R, P, Ma, a, Sum C', es, X-%, SUM6 SP SC, WSUM6 SP SC) well discriminate these two groups. Further, manic disorder with psychotic features subgroup(MP subgroup) was compared to schizophrenia, paranoid subgroup(SP subgroup) on the same 70 variables. MP subgroup was scored higher than SP subgroup on 10 variables(R, W, DQv, FQo, Ma, a, CF, Wgt Sum C, Primary content, All H), but was scored lower on 2 variables(S-CON, DEPI).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manic group showed more active thinking and affective responses but less cognitive slippage than schizophrenic group, and that MP subgroup showed more active thinking, pleasant affective responses, and concern to human relationship than SP subgroup, but cognitive slippage was not different in these two subgroups.